

고(故) 심재룡 교수의 학문세계

조 은 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불교철학)

2004년 10월 20일, 심재룡 선생님은 일 년여에 걸친 힘든 투병을 마감하고 61세라는 젊은 나이에 작고하셨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는 은사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애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학문적 역정을 통해, 그분은 무엇보다도 사물을 일반화하여 규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침예한 비판의식을 유지할 것을 필자에게 가르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선생님의 학문 세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무현(無見) 심재룡(沈在龍) 선생님은 1943년 인천에서 출생하셔서 어린 나이에 부친을 잃고, 평생 헌신적으로 삼남매를 길러내신 편모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내셨다. 서울대 철학부에 입학하여 여러 동료 친구들로부터 서울대의 삼대 천재의 하나로 불릴 만큼 남다른 재치와 총명으로 많은 화제를 남기시기도 했다. 졸업 후 잠깐 기자 생활을 거치신 후, 학창시절에 특별히 흥미를 갖던 언어분석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힘입어 하와이대학 철학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석사 학위를 마친 후, 당시 하와이 대학에 계시던 동양철학의 두 거장 칼루파하나 선생과 장종원 선생을 만난 인연으로 전공을 불교철학으로 바꾸게 된다. 그 후 보조 국사 지눌의 선 사상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1979년 모교의 철학부에 부임하신 이후 25년간 후학을 지도하시면서 연구 작업을 통해 학계와 종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

선생님께서 서울대학에 부임하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철학계에서 동양철학과 불교철학은 다소 새로운 분야였고, 그 방법론이나 지향점

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선생님은 서양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박학한 지식으로 불교철학이 현대한국철학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는 데 누구보다 큰 공헌을 하셨다. 일례로, 선생님께서는 “동양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화두를 제기하시어 이 물음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어 여러 다른 연구 작업들을 자극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정판이 1986년에 출판된, 『한국에서 철학하는 자세』라는 저술이다.

이같이 동양철학이라는 학문의 토대와 방법론을 정립을 위해 학계의 주의를 환기하신 외에, 선생님께서는 또한 80년대 초반 강의와 학술 발표를 통해 한국 불교 일반화의 오류와 회통불교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시으로써 한국 불교학계에 커다란 도전을 던지셨다. 이 회통불교 비판론은 당시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필자를 비롯한 많은 젊은 학자들에게 불교의 연구방법론과 한국불교전통의 성격 규정에 대해 커다란 각성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은 1985년 논문 “한국 불교는 회통적인가”를 통하여 최초로 한국 불교의 회통불교 성격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당시 회통불교란 한국불교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종교적, 교리적 체계를 기술하는 개념으로, 또는 불교적 태도를 규정하고 그 지향점을 밝히는 당위적 명제로서, 또는 한국 불교사를 통사적으로 접근하여 한국불교의 두드러진 성격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해석적 개념으로서 한국 불교계에서 널리 쓰여 오던 개념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이 논문에서 세 가지 점을 지적하셨다. 첫째, “회통불교”라는 담론의 기원을 따져본 점이다. 선생님은 이 말이 최남선(1890-1957)이 1930년 『불교』지 74호에 발표한 “조선불교: 동방 문화사 상에 있는 그 지위”에서 한국 불교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특히 원효의 불교 교학을 통불교라고 지칭한데서 비롯하였음을 밝히셨다. 둘째로 “회통불교론”이 당시 한국 현대 불교 교학의 지향점을 규정하고 동시에 과거의 한국의 불교사를 해석하는 지배적 담론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히셨다. 셋째로는 회통 불교의 내적 논의의 차원에서, 과연 한국 불교가 회통 불교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혹은 한국 불교는 역사적으로 과연 회통 불교였는가 하는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부정적 진단을 내

리셨다.

특히 선생님은 회통불교라는 말의 기원을 따지면서 최남선이 쓴 “통불교”라는 개념은 당시 한국의 불교계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점차 상실해 가고, 나아가 한국의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마저도 함몰해가는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한국 문화의 오랜 역사와 뛰어난 문화적 성취를 증명하고 다시 드러내는 좋은 실례로서 제시된 개념임을 확인하셨다. 다시 말해서, 최남선이 한국 불교 전통을 “통불교”라고 부른 것에는 그 시대적 상황적 이유, 즉 민족적 자존감을 부양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수식적이고 웅변적인 표현으로서 이해해야지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학문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한국 불교의 성격을 정의하는 학술적 개념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의 민족주의적 감성에서 나온 이 용어가 그 이후 역사적 맥락은 무시된 채 학문적 용어로서 채택됨으로써 한국 불교학계에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화되는 효과가 부가된 사실도 동시에 지적하셨다. 심재룡 교수의 이와 같은 이론은 그 후 로버트 버스웰, 존 조르젠센, 그리고 필자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공감되고 계승되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평생의 학문적 성취는 무엇보다도 한국 선불교전통의 기원을 따지고, 그 종조와 그 종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한국 선불교전통의 정체성을 학문의 장 속에서 이론적으로 확립하신 일이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서 주창하는 선 전통이란 비판의 사각지대에서 막연히 예전부터 그렇게 수행되어 온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객관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현재 우리가 통칭하는 “한국 불교”의 정체성은 고려시대에 확립되어 조선시대를 통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전해져 내려온 것이며, 고려시대 보조 지눌에 의해 정립된 선의 이론과 수행법이 조선시대 불교수행 규범으로 채택되어 그 이후 계승됨으로써 현재 우리가 보는 한국 불교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역사적, 사상적, 그리고 종교현상적 측면에서 밝히셨다. 선생님께서는 보조 지눌의 이론적 체계가, 문헌적으로는 혜능의 『육조단경』에서 정혜쌍수의 이념을 수용하고 중국 이통현의 『신화엄경론』으로부터 신행의 중요성과 화엄적 세

계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선과 교 두 전통을 통합시키려 했으며, 또한 수행법의 측면에서는 중국의 대해 종교의 간화선법을 수행의 근간으로 받아들여, 정혜쌍수, 돈오점수로 요약되는 지눌의 선불교의 이론적 체계가 정립되었음을 광범위한 자료 분석과 명쾌한 논증을 들어 밝히었다. 즉 지눌은 깨달음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파악한 후 실천적 수행에 들어가 정진하여야 한다는 돈오점수의 방법론을 정립하였고 이것이 그 후 한국 선불교의 수행관으로서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선 전통에 대한 선생님의 이론화 작업은 이후, 한국 조계종의 종정이었던 성철스님에 의해 지눌의 선사상이 비판됨으로써 큰 계기를 맞게 된다. 성철스님은 조계종의 이념적 기원이 보조선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태고보우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 방법론도 돈오점수론이 아닌 돈오돈수라고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불교계는 새로운 학문적 논변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소위 “돈오점수 대 돈오돈수”, 또는 “돈점 논쟁”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이후 한국 불교의 정통, 이단 논쟁으로까지 비화하여 한국 불교는 뜨거운 논쟁의 와중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후 이십년간 한국 선불교계는 이 논쟁을 둘러싸고 문중간의 반목이 심화되는 등의 우려도 낳았지만, 학문적 입장에서는 전통과 과거 속에 묻혀 있던 한국 선불교가 이 논쟁을 통해 20세기에 되살아나 활기를 띠게 된 계기가 되었고, 불교의 이념이 현재에 살아있는 관심으로써 대중에게 재등장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조계종단의 종조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있지만 — 즉 역사적 종조는 구산선문의 가지산문의 도의 선사요, 제도적 통합을 이룬 종조는 고려 말의 태고보우라고 하더라도 — 적어도 한국 조계종의 사상적 기초를 수립한 증홍조가 지눌이란 사실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생님의 입장이 그 이후 논쟁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큰 기둥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선생님의 평생에 걸친 지눌과 한국선 전통에 관한 연구는 『知訥研究』라는 이름으로 2004년 여름 서울대 출판부에서 발간되어, 선생님의 마지막 유작이 되어버렸다. 이 저작은 제23회 열암학술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상 소식은 선생님을 아끼고 그 학덕을 흠모하

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없는 기쁨인 동시에 그분의 빈 자리를 더욱 애통하게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저작에 대해, 서문에서 “이 책은 지난 연구의 결과이자 앞으로 남은 연구를 위한 중간보고서”라고 하셨다. 또한 당신의 작업의 의미를 자평하시기를, “‘한국’ 불교의 형성에 관하여 적어도 한 가지는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 불교 전통은 고려시대에 형성되어 조선시대를 거쳐 그 틀을 바꾸지 않고 내려왔다는 것이며, 그 고려불교를 형성한 인물 가운데 보조지눌의 위치가 독보적이다”고 하셨다. 이 같은 결론은 그 저술에 함장된 학문적 성과를 상고할 때 너무나 겸손한 요약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선생님의 한국불교 이해가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대체로 한국불교 학계가 이를 따르고 있음을 볼 때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이 한 세대의 분분한 이론들에 하나의 준거가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이제 선생님께서 다져 놓으신 한국 불교 정체성에 대한 보편적 이해의 틀에서 출발하여,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한국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이 우리 후학들의 몫일 것이다. 선생님이 그려놓으신 한국불교라는 거대한 지도 위에 한국 불교의 다양한 성격들을 산맥과 강으로 그려 넣음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지도를 지향해나가는 일이야말로 후학으로서 선생님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삼가 고인의 영전에 명복을 빈다.